

12/5/21

설교 제목: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25 장 1-40 절

(출 25: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 25: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출 25:3)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출 25:4)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실과 염소 털과

(출 25:5)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출 25:6)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출 25:7)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출 25:8)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출 25:9)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 25:10)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출 25:11)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출 25:12)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출 25:13)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출 25:14)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메게 하며

(출 25:15) 채를 궤의 고리에 꿰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출 25:16)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출 25:17)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출 25:18)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출 25:19)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출 25:20)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출 25:21)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출 25:22)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출 25:23)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출 25:24)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출 25:25)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출 25:26) 그것을 위하여 금 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출 25:27)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펠 곳이며

(출 25:28)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출 25:29)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출 25:30)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출 25:31)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출 25:32)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출 25:33)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같게 할지며

(출 25:34)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출 25:35)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출 25:36)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출 25:37)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출 25:38) 그 불집게와 불 뚝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출 25:39)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출 25:40)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아니 이게 웬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겠다고요?

그것도 제대로 지은 건축물이 아닌 천막으로 지은 곳에 말입니다.

후에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지어 봉헌하면서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지은 이 성전에 거하시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 주십사고 간구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상 8:27)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왕상 8:28)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왕상 8:29)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거할 성소의 식양에 대해 25 장에서 27 장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지시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거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구속 사역은 바로 그것을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냥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지 왜 이렇게 성소 식양을 일일이 지시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성소 식양을 통하여 당신의 구속 사역 곧 당신이 어떻게 하여 다시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게 되는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보여 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소 식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구속사적 의미를 알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먼저 성소를 지을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바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출25: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25: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리고 예물 목록을 주십니다.

(출25:3)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출25:4)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실과 염소 털과

(출25:5)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출25:6)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출25:7)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사백 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들에게 어떻게 이토록 귀하고 값진 예물을 기대하셨을까요?

출애굽할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로 부터 은 금 패물을 받아 나오게 하셨는데 이때를 위해 쓰려고 예비케 하셨던 것입니다.

(출 12:35)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출 12:36)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식양에 대해 하나씩 상세하게 지시하십니다.

(출25:8)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출25:9)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언약궤와 속죄소

하나님이 성소 식양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하실 만큼 언약궤와 속죄소는 성소에서 핵심이 됩니다. 언약궤는 궤 안에 증거판이자 언약 판인 두 돌 판을 보관하기 때문에 증거궤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출25:10)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출25:11)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출25:12)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출25:13)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출25:14)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메게 하며

(출25:15) 채를 궤의 고리에 꿰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출25:16)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궤에 고리를 달고 채를 만들어 고리에 꿰라고 하십니다.

이는 당시 광야에서 이동 중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어깨에 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한 언약궤에 손을 댄으로써 부정을 입히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만들어 엮고 그룹을 둘 만들어 속죄소를 덮으라고 하십니다.

(출25:17)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출25:18)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출25:19)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출25:20)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출25:21) 속죄소를 궤 위에 엮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뚜껑 같이 덮였으며 그로 인해 규격이 언약궤와 일치합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존재 곧 천사의 일종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선포하고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속죄소를 날개로 덮고 있는 그룹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 궤를 보호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증거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을 기록한 돌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증거판에 기록된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약한 율법을 준행하지 못합니다.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아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갈 3: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정죄 받아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 이스라엘 백성의 피가 아니고 대신 죽임을 당한 희생 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게 함으로써 죄와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일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희생 제물들의 피를 가지고 언약궤와 속죄소가 놓인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장자 대신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 아래 곧 은혜 아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만남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희생 제물의 피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 아버지와 창세기에서 추방당한 자녀들 간의 만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와 속죄소 식양을 통해 죄 아래 그래서 심판과 저주 아래 있던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받아 구원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히 9:11)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히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 9:13)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히 9: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담대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힘입는 믿음의 담대함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출25:22)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속죄소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희생 제물의 피와 대제사장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고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온전케 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히 10:14).

진설병 상(떡상)

(출25:23)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출25:24)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출25:25)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출25:26) 그것을 위하여 금 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출25:27)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켈 곳이며

(출25:28)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출25:29) 너는 대접과 손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출25:30)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은 하나님 면전에 바치는 떡이며 이 떡을 진설하는 상이 진설병 상입니다.

떡상이라고도 하는데 성소 오른 편에 둡니다.

하나님은 매 안식일마다 떡 열 두 덩이를 구워 당신 앞에 두 줄로 6 개씩 12 개를 진설하라고 하십니다 (레 24:8,9).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고리 넷과 장대 곧 채를 만들어 꿰어 이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요 6:35)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등대

(출 25:31)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출 25:32)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출 25:33)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같게 할지며

(출 25:34)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출 25:35)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출 25:36)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출 25:37)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출 25:38) 그 불집게와 불 뚝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출 25:39)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출 25:40)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대는 그 줄기 좌우로 각 3 개씩 가지가 뻗어 있어 대칭을 이루도록 만들어 성소의 왼편에 두라고 하십니다.

줄기는 양 옆의 세 가지들이 각각 붙어 있는 정 중앙의 지주를 말하며 잔은 등잔과는 다른 일종의 악세서리로 살구 꽃 형상으로 만들라고 하시는데 살구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부활과 희망, 각성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국가를 상징하는 국장으로 이 등대의 모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대는 인류의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 8:12)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중에 거하신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육신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의 몸을 성소로 삼아 거하시다가 재림의 날 그 거하심이 완성될 것입니다.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듬을 보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예비하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재림이 더듬을 보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거나 않은지 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더딘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회개하고 그날만을 바라고 소망하며 사십시요.

당장은 패배자같이 보여도 그것이 결국 승리자가 되는 길입니다.

승리자 되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만납시다.